



전주매일



세계 첫 개발 '큐플레이크' 양산

LS전선 자회사 한국미래소재, 군산에 생산공장 구축... 이차전지 핵심 소재 국산화 등 큰 기여

LS전선의 자회사로 친환경 전기화(Electrification) 신소재에 특화된 한국미래소재(주)가 군산국가산업단지에서 전기화 시대에 대응할 친환경 소재 생산기지를 구축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12일 군산 지소에서 한국미래소재(주) 군산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와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을 비롯해 전익수 한국미래소재 대표가 자리했으며, 구본규 LS전선 대표이사 등 IS 계열사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번 공장 설립은 60여 년의 구리 소재 생산 노하우를 보유한 LS전선이 친환경 신소재 시장 선점을 위해 2024년 1월 한국미래소재(주)를 출범시키며 본격화했다.

같은 해 3월 25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군산국가산업단지 1면 16,576㎡ 부지에 450억 원을 투입해 신공장을 짓기로 했으며, 약 1년여 간의 공사를 거쳐 이번 준공에 이르렀다.

한국미래소재의 핵심 제품은 세계 최초로 개발된 전해동박용 고성능·고효율 원소재 '큐플레이크(Cu-Flake)'다. 기존 구리선재 대신 구리 조각 형태의 신소재를 원료로 사용해 동박 제조 공정을 4단계에서 1단계로 대폭 단축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과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했으며, 기존 구리선재 대비 탄소 발생량을 87%까지 줄여 글로벌 ESG 기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12일 군산에서 한국미래소재(주) 군산공장 준공식이 열린 가운데,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 전익수 한국미래소재 대표, 구본규 LS전선 대표이사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컷팅을 하고 있다.

전기자 배터리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글로벌 동박 수요가 2030년까지 22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큐플레이크 양산은 그동안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이차전지 핵심 소재의 국산화와 K-배터리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준공으로 군산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 소재와 재생구리 소재를 아우르

는 친환경 첨단소재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한국미래소재는 이번 공장 가동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글로벌 시장 수요 확대에 발맞춰 추가 투자와 고용도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한국미래소재(주)는 LS전선이 구리 소재 생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친환경 전기화 신소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로, 동박용 소재와

전선용 친환경 소재, 초전도 케이블용 소재, 폐자원 리사이클링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필리핀에 합작 생산법인을 구축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모회사 LS전선과 연계해 원료 수급부터 가공,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체계를 구축해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주한옥마을에 AI 입히다

시, 한옥마을 일원서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스마트 주차·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키로

연간 1,000만 명이 방문하는 국가대표 여행지인 전주한옥마을이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스마트 관광지로 탈바꿈된다.

전주시는 정부 공모사업인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전주한옥마을 일원에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과 스마트 주차,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관광객 안전과 교통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며, 총사업비 25억원(국비 17.5억원, 시비 7.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은 전주한옥마을과 공영주차장 일원으로, 시는 AI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 중심의 스마트 관광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전주한옥마을 전역에는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구체적으로 시는 지능형 CCTV와 스마트폴을 활용해 방문객 밀집도를 실시간 분석하고, 혼잡 상황을 신호등 형태로 안내해 보행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화재 등 각종 이상 상황을 자동 감지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관광지 안전 수준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동시에 야간 조도 취약 구간 개선도 병행해 보다 안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한 스마트 주차 통합플랫폼도 구축한다. 시는 전주시 공영주차장 49개소

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해 실시간 주차 가능 정보제공과 모바일 사전 정산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한옥마을과 전주시 전역의 교통 혼잡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 데이터를 통합·활용하는 빅데이터 통합플랫폼도 마련된다. 시는 교통·환경·민원·상권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해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시각화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직관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국가기관 및 공공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해 정밀한 분석 기반을 확보하고, 정책 수립과 도시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과 편의 수준을 동시에 높이고, 데이터 기반 도시 운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스마트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전문화한 자산인 한옥마을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전주민의 차별화된 관광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구축을 넘어 관광·교통·안전·데이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스마트 도시 모델을 구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선관위 "14~15일 지선·재보궐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은 21일부터

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외), 본인증사서(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 한함),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교육감선거에 한함), 정당의 후보추천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감선거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후보추천서 대신 선거관리원의 후보추천장을 제출한다.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에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한편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 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후보자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등록상황 및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6월 3일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s://infomc.gov.kr)에 공개될 예정이다. /오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등록 시에는 기탁금을 납부한 후 재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전주한옥마을, 《사진=뉴스시스 제공》

특별한 맛과 즐거움이 기다립니다

무주머루와인동굴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산성로 359

청정본능 무주군 직접 운영

반디불 사이버장터

http://mj1614.com 검색

무주군 063-320-2770